

研究資料

韓國에서의 칼빈 研究(I)

(Calvin Studies in Korea)

이 상 규

(本 研究所 研究員)

차 례

- | | |
|--------------------------------------|----------------------------------|
| I. 序論(問題點 提起,
目的, 方法, 範圍) | (2) 해방 후 20년 간의
研究(1950—1969) |
| II. 칼빈 研究의 現況 分
析 | (3) 최근 10년 간의 研
究(1970—1979) |
| III. 칼빈 研究의 歷史的
發展
(1) 1945년까지 | IV. 칼빈 研究에 관한
文獻錄
맺는말 |

I. 序論(問題點 提起, 目的, 方法, 範圍)

(1) 본고의 目的은 基督教의 한국 전래로부터 1979년까지 한국에
서의 칼빈 연구에 관련된 文獻 자료를 통해 한국에서의 칼빈 연구의

진전과 주류적인 학문 관심과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에서의 칼빈 研究의 역사와 진전을 진단해 보려는 데 있다.

1885년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의 入國을 기점으로 본다면 장로교가 한국에 전래된 지는 벌써 1세기를 헤아리게 되었다. 한국 長老敎는 선교 초기부터 칼빈主義 혹은 改革主義的 正統神學을 근간으로 하여 왔고¹⁾, 칼빈主義란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으며 1945년 해방 이후 장로 교회의 분열이 있을 때마다 칼빈주의가 저들의 중심적 신학이며 그 신학을 수호하는 것이 대 사명인 양 교파 분열의 타당성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우리는 장로교의 元祖인 改革者 칼빈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어느만큼이나 어떻게 소개되고 그의 신학이 얼마나 연구되고 한국의 크리스찬의 삶의 신학적 근거가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 신앙을 재검토하고 비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Ⅱ) 요한 칼빈(John Calvin, 1509-1564)은 信, 不信을 막론하고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아는 인물이다. 그것은 칼빈이 교회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있어서나, 특히 서구 정신사에 있어서 도외시될 수 없는 存在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여러 면에서 인류에게 轉換點을 가져다 준 人物이다. 著名한 칼빈 연구가의 한 사람인 J.T. McNeil은 칼빈主義 연구의 결론에서 말하기를 “오늘의 서구 역사는 칼빈의 영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²⁾라고 하였다. 실로 그가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는 물론 유럽 사회의 精神史에 끼친 영향은 지대

1) 이 근삼, “한국 장로교회의 神學과 信仰告白의 定着化”, 고신대학 「論文集」, 제7집, pp. 13-19.

2) J. T. McNei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New York: Oxford, 1962), p. 234.

하다. 칼빈과 그로부터 기초된 칼빈주의는 서구 크리스찬의 생활 속에 성경적인 개혁주의적 세계관(biblically reformed world-and-life view, Weltanschauung)을 심어주었으며³⁾이로부터 서구 정신 문화의 성격이 결정됐다는 데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고 있다. 가톨릭의 文化史家인 크리스토퍼 도오슨(Christopher Dawson)은 서구 민주주의 발전을 비롯한 전 영역에서의 칼빈의 영향을 지적하기도 한다.⁴⁾ 워필드(B. B. Warfield)는 사도 바울부터 宗教改革者 루터까지 하나님을 보내신 가장 위대한 인물은 어거스틴(Augustine)이라는 하르낙(Adolf Harnack)의 말을 인정하면서 종교 개혁자 루터에서부터 현대까지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위해 보내신 가장 위대한 인물은 칼빈이라고 말한다.⁵⁾

그러므로 그가 교회적으로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교회, 특히 장로교가 그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의 신학을 얼마나 깊이 소화하고 있는냐고 묻는다면 여기에는 선뜻 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이 이 글을 준비하며 자료를 섭렵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미진하며 성실한 연구가 결핍됐는가를 알고 크게 놀랐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한국 교회에서의 칼빈 研究의 역사를 文獻을 통해 측면으로 접근해 보려는 것이 本稿의 시도다.

(Ⅲ) 한 철학 박사는 한국 장로교나 감리교는 그들의 교리의 근원인 칼빈이나 웨슬레를 신학적으로 모르고 있고, 主觀的 경험 중심의 신앙

3) David E. Holwerda ed., *Exploring the Heritage of J. Calvi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p. 164.

4) Christopher Dawson, *The Judgement of the Nations* (New York, 1942), pp. 44-46.

5) B. B. 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4), p. 26.

이요 道德主義中心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⁶⁾ 다시 말하면 한국 장로 교회는 칼빈 신학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성경 수호를 그 생명처럼 내세웠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정죄했으며 결과적으로 교단이 분열되는 역사적 경험을 겪으면서도 한국에서 성서학이 가장 늦게 발달한 것은 칼빈주의, 칼빈 신학을 말하면서도 칼빈을 전혀 모르는 한국 장로 교회의 현실과 더불어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安炳茂 박사는 한국의 신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부분적으로나마 개관하여 한국의 보수계 신학은 그가 해야 할 과제를 다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평을 가하고 있다. “...예로서 예수교 장로교 學界에서 본다면 칼빈 신학을 기준으로 하면서 과연 얼마나 칼빈 神學을 이 땅에 소개했으며 그 연구가 진전됐느냐는 것이다. 칼빈 신학이 전혀 敎會에 토착화하지 못한 것은 바로 保守神學界의 책임이며 과제일 것이다.”⁷⁾ 그러면서 칼빈 신학으로 백 년 가까이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칼빈 전집은 물론 그의 主著인 「基督敎綱要」도 우리말로 全譯하지 못했으며 聖書觀을 自己同一性의 기점으로 하면서 칼빈의 방대한 聖書註釋도 옮겨 놓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⁸⁾ 한국에는 어떤 신학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몇몇 신학적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바르트 신학에 일생 동안 꾸준히 집념하고 소개한 이들로 전 경연, 박 봉량, 지 동식, 박 순경, 윤 성범 등의 교수가 있고 저들의 노력은 「바르트神學 研究」⁹⁾라는 공동 논문집을 낼 수 있었으며 그 외에 많은 높은 수준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불트만 신학에 집념하는 이들로 허 혁, 변 선환 교수를 위시하여 신약 학자로는

6) 한 철하, “한국 敎會의 神學的 自立,” 「基督敎思想」(1965. 6).

7) 안 병무, “韓國의 神學的 現況과 課題,” 「神學思想」, 제1집 (1973), p. 17.

8) *ibid.*, p.17.

9) 한국 바르트학회 編, 大韓基督敎書會刊, 1970, p.345.

김 용옥, 문 상희, 이 상호 교수들과 지금은 종교학으로 전향한 유 동식 교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바르트와 불트만 신학은 學派를 이루지는 못 했으나 신학계에 뚜렷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¹⁰⁾ 그 외에 틸리히 신학을 이 땅에 소개하는 학자로는 서 남동, 김 하태, 김 경재 교수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現代神學者들에 대한 한국의 自由主義의 신학자들의 학문적 노력에 反해 보수적인 敎會의 칼빈 研究에 대한 신학적 작업이 그리 활발하지 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한국에서 칼빈 研究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李根三, 李鍾聲 兩 교수를 들 수 있다. 兩 교수는 칼빈에 대한 독자적인 저술을 남겼으며 국제 대회에 참여하는 등 칼빈 연구에 진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더 많은 칼빈 학도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장로 교회는 지금까지 역점을 둔 神學的 指向性에서 얼마나 충실했으며 얼마만큼 진전하고 있는가를 문제시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iv) 우리는 칼빈 研究의 문제와 과제를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칼빈에 대한 연구와 칼빈의 저서가 우리말로 쓰여지고 옮겨진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와, 둘째로는 그것들이 실제로 한국 교회의 신학적 사고에 얼마만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칼빈 연구의 부진과 칼빈 著作의 간행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한국 신학계의 학문적 불성실인가? 아니면 그 신학이 일반화될 수 있는 신학 의식의 결핍, 곧 독자의 무관심인가?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아직도 칼빈, 칼빈주의를 말하면서도 실상은 칼빈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며 후자의 경우라면 아직도 칼빈의 신학과 가르침이 한국 교회의 신학적 사고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칼빈主義를 지향하는 목회자의 강

10) 안 병무, *op. cit.*, p.20.

단 메시지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다.

본고의 전개 방법은 기독교의 한국 전래에서 1979년까지 한국에서 출판되고 연구된 칼빈 연구에 관계되는 저서, 논문, 번역서 등 필자에게 제공된 자료 범위 안에서 조사하여 종합 진단하고 연구의 발전적 추이를 이해하기 위해 3시기로 구분 고찰하고 문헌 자료는 年度別로 배열하였다. 엄격히 말하면 칼빈의 신학과 '칼빈주의'는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칼빈의 신학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信仰告白들 사이에 나타나는 몇 가지 相異한 차이점들은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될 것이다. 1618년 도르트 노회는(Dordt Synod) 이 질문에 대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칼빈주의라 하면 칼빈 이후의 改革教會의 역사적 발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것이 될 수도 있으며 그것까지도 칼빈의 교훈과 전연 무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文獻 작성에서 칼빈주의에 대한 것도 포함시켰으며 칼빈에 대한 상이한 해석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았다.

II. 칼빈 研究의 現況 分析

(i) 금년은 칼빈이 출생한 지 470년, 신교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적 문헌인 「基督教 綱要」를 完成한 지 420년이 되는 해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의 이름이 붙는 사상 운동의 서론이다. 이로부터 연유된 칼빈의 복음주의적 개혁주의 신학은 칼빈이 생전에 활동했던 스위스의 제네바와 쓰리히, 스트라스버그, 불란서, 독일, 화란, 영국과 스코틀랜드, 그리고 퓨리타니즘을 기층에 깔고 있는 북미 합중국과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지난 400년간 신학적 주류를 형성해 왔다. 한국 장로 교회도 칼빈주의를 기층에 깔고 성장해 왔지만 종교

개혁가로서의 칼빈이 1924년 최초로 소개된¹¹⁾ 이후 1979년까지 55년 간 쓰여진 칼빈에 관한 글은 200여 편에 지나지 않는다.¹²⁾

(ii) 해방 전 장로교의 대표적 잡지이며 최초의 신학 잡지였던 1918년 창간된 「神學指南」은 창간된 지 16년 후인 1934년(통권 76호)에 와서 비로소 칼빈을 소개하고 있다.¹³⁾ 1918년 창간된 이래 일제 치하에서 정간되기 전인 1940년까지 22년간 칼빈, 칼빈주의에 대한 논문은 14편에 지나지 않으며 1953년 복간된 후 1979년까지 26년간 오직 36편의 칼빈에 관한 논문(번역 논문 포함)이 취급되었을 뿐이다.¹⁴⁾ 이렇게 보면 한국 장로교의 대표적인 잡지이며 해방 전 유일한 장로교 잡지에서 칼빈에 관한 글은 일 년에 한 편씩도 취급되지 못했다는 결론

11) 김 인영, "宗教改革家 요한 칼빈", 「神學世界」(1924. 9), pp.40-44.

12) 이 종성 박사는 각종 잡지와 정기 간행물에 발표된 칼빈 연구에 대한 논문을 70여 편으로 집계했는데 이 중 15편은 신학 석사 학위 논문으로 쓰여진 것이며 칼빈 연구에 대한 전체 논문 중 15% 정도가 1945년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cf. Jong-Sung Rhee, "Calvin Studies in Korea," *Circular* (Clearing house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institutions for Christian Scholarship), No. 13 (April, 1979), p.61.

13) 배 한국 교수는 「神學指南」에서의 칼빈 소개를 창간된 지 20년 후인 1973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배 한국, "한국에 있어서의 루터연구" 「루터연구」, 제 3호, 1967, p.21) 이것은 誤記이다.

14) 「神學指南」은 1918년 창간되어 1921년까지 연 4회 발간(통권 12호)

1921년 휴간

1922-1927년까지 연 4회 발간(통권 36호)

1928-1940년까지 연 6회 발간(통권 113호)

1941-1952년 정간

1954년 3회 발간(통권 116호)

1955-1962년 1회 발간(통권 122호)

1963년 4회 발간

1964년 2회 발간

1965년 3회 발간

1966-1979년 연 4회 발간(통권 186호)

이다. 1950년대 이후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 잡지인 1957년 창간된 *기독교신학*은 창간으로부터 1979년까지 22년간(통권 258호) 직접적인 칼빈에 대한 논문은 오직 7편밖에 취급되지 않았으며¹⁵⁾ 그것마저도 칼빈 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아니다. 장로교 신학의 源流에 대한 연구와 관심보다는 現代神學의 소개와 사회적 관심에 집중되는 *기독교신학*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칼빈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적은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iii) 칼빈과 칼빈 신學에 관해 쓰여진 碩士學位論文은 23편인데¹⁶⁾

- 15) 1957-1979년까지 「기독교신학」에 취급된 칼빈에 대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윤 성범, “칼빈의 神認識” 5, No. 3(1961. 3), pp.20-27.
 鮮于學源, “칼빈의 生涯와 政治思想”, 11, No. 7(1967. 7), pp. 95-105.
 河海龍, “칼빈의 聖書理解”, 12, No.3(1968. 3), pp.84-90.
 한 철하, “政治的 칼빈主義” 15, No.3(1971. 3), pp. 60-65.
 김 이태, “칼빈의 改革精神의 底力” 19, No.9(75. 10), pp.30-38.
 李章植, “칼빈의 宗教改革과 韓國長老教會,” 22, No.10(78. 10), pp. 42-54.
 羅鶴鎮, “保守의인 루터와 進取的인 칼빈,” 22, No. 12(78.12), pp.96-113.
- 16) 칼빈에 관한 석사 학위 논문(1961-1979)은 다음과 같다.
 박 성모, “칼빈의 人間解釋과 近代 市民社會”, 연세대학원, 1961.
 차 태화, “칼빈의 思想과 그 現代的 意義”, 大邱大學 大學院, 1962.
 조 창연, “칼빈의 國家觀”, 韓神大 大學院, 1962.
 서 용주, “칼빈 神學에 있어서의 神認識論”, 연세대 연신원, 1966.
 장 종철, “칼빈의 召命觀에서 본 Max Weber의 職業倫理”, 연세대 연신원, 1967.
 하 해룡, “칼빈의 聖書理解”, 연세대 연신원, 1968.
 이 용삼, “칼빈의 人間理解”, 연세대 연신원, 1971.
 김 상학, “칼빈 신학의 教會論”, 연세대 연신원, 1971.
 이 태용, “키에르케고르와 칼빈의 人間賞存理解”, 건국대 대학원, 1971.
 이 영희, “루터와 칼빈의 教育理想 比較研究”, 연세대 교육대학원, 1972.
 강 동수, “칼빈의 聖靈論理解”, 연세대 연신원, 1972.
 박 근원, “J. 칼빈의 神認識論研究”, 한신대 大學院, 1972.
 유 무열, “Calvinism이 法에 미친 영향”, 東國大 大學院, 1972.
 김 종인, “칼빈의 政治思想에 관한 研究”, 건국대 大學院, 1973.
 오 창학, “칼빈 神學에 있어서의 人間 회복”, 長神大 大學院.

그 중 7편은 1960년대에, 16편은 1970년대에 쓰여졌다.

(iv) 한국인 학자에 의해 쓰여진 칼빈, 칼빈 神學에 관한 저작은 1959년부터 출간되어 8권이 출간되었다 이 8권의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金景淵, 「칼빈의 生涯와 그 神學思想」(新敎出版社, 1959)

李鍾聲 편, 칼빈 서거 400주년 「紀念論文集」(한국 칼빈신학 연구회 1965), 134p.

李鍾聲, 「칼빈 一生涯와 思想」(예장 총회 교육부 1968', 대한기독교서회 1978²⁾), 253p.

김 성환,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영음사, 1969), 274p.

李根三, 「칼빈, 칼빈主義」(고신대 출판부, 1972', 1976²⁾), 209p.

김 남식 편, 「칼빈주의 연구」(백합출판사, 1972), 208p.

정 성구, 「칼빈의 思想과 삶」(한국성서협회, 1978), 220p.

韓神大 교수 11인 공동 집필, 「칼빈神學의 現代的 理解」(한신대출판부, 1978), 247p.

(v) 칼빈 칼빈 神學에 관련된 外國學者들의 著作은 18권이 譯刊

박 충식,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의 豫定論研究”, 건국대 大學院, 1973.

김 성광, “칼빈의 政治思想에 관한 研究”, 外大 大學院, 1974.

노 의일, “칼빈의 教育思想이 西歐近代社會의 資本形成에 미친 영향”, 연세대 교육 대학원, 1976.

김 대식, “칼빈의 教會觀”, 韓神大 大學院, 1975.

이 성철 “칼빈의 教會와 國家”, 長神大 大學院, 1976.

장 성규, “요한 칼빈의 牧會論”, 長神大 大學院, 1976.

한 영태, “웨슬레와 칼빈의 義認觀과 重生觀 比較研究”, 서울신대 大學院, 1976.

강 용원, “칼빈의 教育活動과 그 意義에 관한 研究”, 長神大 大學院, 1978.

되었는데 冊名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譯刊年度順)

- Boettner, L.(박 형룡 역), 「칼빈主義 豫定論」, *Reformed view of Predestination*(예장宗敎敎育部, 1937), 367p.
- T. H. L. Parker(김 재준 역), 「칼빈의 모습」, *Portrait of John Calvin* (大韓基督敎書會, 1950), 137p.
- Dakin, A.(이 병섭 역), 「칼빈主義」, *Calvinism*(大韓基督敎書會, 1956), 346p.
- Mectter, H. Henry(박 윤선, 김 진홍 역), 「칼빈主義」, *The Basic Ideas of Calvinism*(한국 개혁주의 신행협회, 1959), 199p.
- Bavinck, H.(손 두완 역), 「칼빈과 一般恩寵」(성인출판사, 1960).
- Strong, R.(이 창원 역), 「칼빈主義 五大敎里」, *The five Points of Calvinism*(복된말씀社, 1961).
- Dengerink, J. D.(정 정숙 역), 「칼빈主義와 政治」, *Calvinistic view on Politics*(神學指南社, 1968, 개혁주의 신행협회, 1971).
- Kuyper, A.(박 영남 역), 「칼빈主義」, *Lectures on Calvinism*(1898) (世宗文化社, 1971), 261p.
- Van Til Henry R.(이 근삼 역), 「칼빈主義 文化觀」,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영음사, 1972), 361p.
- Reid, W. S.(김 영우 역), 「自然科學과 16세기 칼빈主義」, *Natural Science and Calvinism in the 16th Century*(神學指南社, 1972).
- Boettner L.(홍 익표 역), 「칼빈主義 豫定論」, *Reformed view on Predestination*(백함출판사, 1972).
- Niesel, Wilhelm(이 중성 역), 「칼빈의 神學」, *Die Theologie Calvinus*(大韓基督敎書會, 1973), 294p.
- Boettner, L.(M. F. 잉글 요약판, 김 정덕 역), 「칼빈主義 豫定論」

- (세종文化社, 1974).
- Steel, D. N. and Thomas, C.(김 남식 역), 「칼빈主義와 알미니안主義」, *The five points of Calvinism*(한국 성서협회, 1975), 158p.
- Murrey, John(나 용화 역), 「칼빈의 聖經觀과 主權思想」, *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예수교 文書宣敎會, 1976), 110p.
- 구도사끼꼬기찌(계 훈창 역), 「존 칼빈전」(七白社, 1976), 268p.
- Green, Jay(정 성구 역), 「칼빈주의 : 어제, 오늘, 내일」, *Calvinism; Yesterday, today, tomorrow*(세종文化社, 1977), 130p.
- Spier, J. M.(김 남식 역), 「칼빈主義哲學」, *What is Calvinistic philosophy?* (세종文化社, 1978), 95p.

(VI) 번역 출간된 칼빈의 著書로는,

- Institute in Compend, edited by Hugh T. Kerr(이 중성 역), 「基督敎綱要選」(大韓基督敎書會, 1960).
- Institutes(신 복윤 역), 「基督敎綱要」 Vol. I (生命의 말씀社 1964, (나머지 II, III, IV권은 번역중).
- Institutes(김 문제 역), 「基督敎綱要」 Vol. I~IV (世宗文化社, 1977).
- Commentaries(칼빈 저작 간행회에 의해 譯刊 준비중) 등이 있다.

III. 칼빈 研究의 歷史的 發展

(1) 1945년까지

해방 이전 한국 기독교는 新生教會로서 미숙한 때가 많았다. 게다가 이조 말기의 정치적 혼란기와 일제의 식민 통치하에서 견디기 어려운 試鍊을 겪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이룩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신학의 모든 분야에서 깊은 연구는 행해질 리가 없었고 칼빈 研究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럽에서는 1909년 칼빈 출생 400년을 紀念하여 칼빈에 관한 서적이 강같이 흘러 나왔고, '이 강은 氾濫했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高潮에 달했었다.¹⁷⁾ 또 宗教改革 400주년을 맞는 1917년을 전후하여 20세기 초반기에 宗教改革者 研究, 특히 Luther와 Calvin에 대한 재해석과 평가를 위한 줄기찬 연구의 물결로 '칼빈 르네상스'나 '루터 르네상스'란 말까지 대두하게 되었다.¹⁸⁾

또한 20세기 초엽 K. Barth의 등장은 루터와 칼빈 등 종교 개혁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환기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시기 한국에서는 칼빈의 생애조차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었다.

루터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칼빈에 대한 그것보다 빨랐던 것은 확실하다.¹⁹⁾

루터에 대한 단행본도 칼빈보다 훨씬 먼저 출간되었다.

장로교 목사로서 주한 선교사이며 國學研究家였던 게일 박사(Dr. James S. Gale, 1863-1934)는 1908년 196면에 달하는 「루터의 개교 기략」(1908, 광학서포 발행 校閱者 이 창직)을 한글로 저술하여 한국 교회에 루터를 소개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改革者 루터의 생애와 그의 宗教改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소개

17) T.H.L. Parker, *Portrait of John Calvin*(칼빈의 모습). p.3.

18) c.f. Wilhelm Pauck, *The Heritage of the Reformation* (Boston, 1950), p.277.

지 원용, 「중명」(대한기독교서회, 1960), 제1장 '루터 연구의 발자취'

19) 배 한국, 「한국에 있어서의 루터 연구」, 「루터연구」, 제3호 pp. 19~31. 참고

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칼빈에 대한 文獻은 찾을 길이 없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1919년 宣教師 부두일(W. R. Foote)이 「更正敎史記」를 써서 루터와 칼빈의 사적을 설명했다. 책을 입수하지 못하여 칼빈에 대한 소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없어서 유감이다. 이 시기에 칼빈의 생애만이라도 소개한 책은 없으며 敎會史의 한 부분으로 칼빈에 대한 소개가 나올 뿐이다.²⁰⁾

종교 개혁자로서의 칼빈이 최초로 소개된 1924년²¹⁾부터 1945년까지 20년 동안 씌어진 칼빈에 관계된 글은 20편이 안 되는 실정이다.

「神學指南」이 창간된지 16년 후인 1934년에 최초로 칼빈을 소개하고 있는데²²⁾ 이때 나타난 칼빈의 모습은 宗教改革者로서 아니면 長老敎의 元祖로서 일종의 위인 전기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기는 사실상 칼빈 사상 연구가 아니라 칼빈을 종교 개혁의 위인으로서 그의 업적을 알리고 그의 인품을 소개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1937년에는 L. Boettner의 「칼빈주의 예정론」(*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이 朴亨龍에 의해 번역 출간되었는데 이 책은 칼

20) W.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1932, 유 형기 역, 신생사刊), 한 치진, 「宗教改革史要」, 1933.

21) 김 인영, 「宗教改革史家 요한 칼빈」, 「神學世界」, 1924. 9, pp. 40-44.

22) 「神學指南」 16권 4집(1934. 7), 통권 76에서는 칼빈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데 目次를 보면

남 궁혁, 「칼빈 神學과 現代 生活」

宋昌根, 「요한 칼빈의 一生」

朴亨龍, 「칼빈의 豫定論」

채 필근, 「칼빈의 敎會論과 敎會政策」

李訥瑞, 「칼빈 神學과 그 感化」

羅富悅, 「聖書註釋家로 본 칼빈」

곽 안련, 「講壇의 칼빈」

칼빈(金在俊譯), 「逼迫」-칼빈의 說敎-

빈주의 신학에 관한 최초의 譯書로서 귀중하게 평가된다. 특히 알미니우스주의(Arminianism)와 비교하여 예정론을 中心한 칼빈주의에 관한 논술서인데 개혁자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포괄적인 저술로 대단히 권위있는 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시기에는 칼빈에 대한 연구는 미진했으나 이 당시의 신학적 입장은 칼빈주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²³⁾ 사실 칼빈이란 인물과 그의 사상에 대한 깊은 연구보다는 칼빈主義的 正統主義神學이 있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의 신학적 관심을 분석함으로써 칼빈이 어느 정도 이해되었는가를 고찰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소개된 칼빈主義神學은 17세기 이후 형성된 칼빈주의적 정통주의 신학으로서 1618-1619년 사이 화란의 칼빈主義者들이 중심이 되어 돌트에서 소집되어 채택된 돌트 선언문(Canons of Dordt, 1619)과 제2 헬베틱 신조(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6)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1648)에 표명된 신학이라고 볼 수 있다. 17세기 이후 발전된 칼빈주의 신학사상²⁴⁾은 칼빈 자신이 체계화한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에 의해 형성된 점에서 그것은 칼빈의 사상과 반드시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결국 한국에 전래된 신학은 화란에서 체계화된 신학 사상과 영국에서 形成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가 거기서 약 200년간 지나다가 한국으로 전달된 것이다. 그러므로 時間的으로 약 300년간의 간격이 있으며 공간적으로

23) 이 근삼, “韓國長老教會의 神學과 信仰告白의 定着化”, 고신대학 「論文集」 제 7집, pp. 13~19 참고

24) 이 중성 박사는 17세기 이후에 발전된 칼빈주의 신학 사상을 칼빈 자신의 사상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말하는데, 관심 있는 분은 「神學思想」 제25집(한국신학연구소, 1979), pp. 245~246을 참고할 것.

수십만의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한국에서는 칼빈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당시 韓國의 代表的인 칼빈主義者라고 하는 朴亨龍도 칼빈의 思想을 직접 연구한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미국의 칼빈주의 신학을 모방 소개하는 데 불과했다.²⁵⁾

이렇게 볼 때 朴亨龍은 칼빈主義者이긴 했으나 칼빈學者는 아니었다. 朴亨龍은 외국 유학에서 1928년 귀국하여 1930년부터 평양신학교 교수가 되어 칼빈주의적 정통 신학자로서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으나 칼빈에 대한 研究는 놀라울 정도로 부진했다. 그는 칼빈 思想 몇 가지에 대해 6편의 논문을 發表했으나²⁶⁾ 별로 가치가 있거나 무게가 있는 것은 아니다.²⁷⁾ 朴亨龍은 그의 敎義神學 전체²⁸⁾를 통해서 볼 때 웨스트민스터 信仰告白書와 19세기 이후의 칼빈주의 학자들의 글을 무시로 인용하지만 칼빈의 著書에서 직접 인용한 것은 거의 없다. 칼빈은 가톨릭의 스킨라 哲學이나 루터 神學에 비하여 聖靈을 강조한 ‘聖靈의 神學者’이다.

칼빈 신학의 두 주춧돌은 하나님의 말씀론과 성령론이었다. 또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성경의 神的 권위에 대한 증명은 성경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自證性과 聖靈의 內的 證據에 의

25) 朴亨龍, “칼빈主義 豫定論”, 「神學指南」(1934. 7), pp. 28~37 참고

26) 칼빈에 관계된 朴亨龍의 6편의 논문은 아래와 같다.

“칼빈의 豫定論”, 「神學指南」, 16. No.4(1934. 7), pp. 28~37.

“칼빈主義와 新칼빈主義”, 「神學指南」, 22. No.5(1940. 9), pp. 10~12.

“칼빈의 現代的 意義”, 「神學指南」, 29. No.1(1962. 9), pp. 5~10.

“칼빈 神學의 基本原理”, 「神學指南」, 29. No.1(1962. 9), pp. 20~31.

“칼빈主義의 後代異蹟觀”, 「로고스(총)」, 16. (1964. 12), pp. 12~16.

“루터와 칼빈의 聖禮觀比較”, 「로고스(총)」, 20. (1968. 12), pp. 50~60.

27) 이 중성, “약 형통과 한국 장로 교회”, 「神學思想」(한국신학연구소, 1979), p. 252 참고

28) 「敎義神學」全七卷(序論, 神論, 人罪論, 基督論, 救濟論, 敎會論, 末世論) 총 2,908페이지, 은성文化社, 1977.

해(by the inward testimony of the Spirit) 확립된다고 보았다.²⁹⁾ 그리하여 칼빈에게 있어서 성령은 그의 神學의 定礎인 것이다.³⁰⁾ 그래서 칼빈은 성령론을 그의 「基督敎綱要」 제3권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朴享龍은 칼빈과는 엄청나게 달리 통속적인 방법에 따라 救援論이란 題目 아래 성령을 매우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 또한 그는 千年王國說에 있어서 칼빈³¹⁾이나, L. Berkhof,³²⁾ Vos, Hamilton, Murray 등이 주장하는 無千年說을 부인하고 前千年說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한다.³³⁾ 이렇게 볼 때 박 형룡의 칼빈 이해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칼빈 사상이 전혀 일반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지도적인 宣教師이며 엄격한 칼빈주의를 가르쳤던 W. D. Reynolds(李訥瑞)와 John C. Crane(具禮仁) 兩 박사의 著作에서도 칼빈 이해의 정도를 감지할 수 있다.

Reynolds 박사는 1892년 來韓하여 45년간 한국에서 일했는데 1924~1937년 은퇴시까지 13년간 평양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였다. 그는 중국인 玉銘賈(Ok-Ming Kao)의 著書 *Evidence of Christianity*를 중심으로 (이 책은 1931년 이영태에 의해 번역 출판됨) 가르쳤다. 이 책은 프린스톤신학교 교수였던 C. Hodge의 *Systematic Theology*(3권)와 A.H. Strong의 *Systematic Theology*(단권)를 기초로 저술된 것이다.

이 두 신학자는 칼빈 研究家는 아니었으나 칼빈主義者로서

29) John H. Leith, "John Calvin-Theologian of the Bible", *Interpretation*, Vol.25, No.3 (July 1971).

_____,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John Knox Press, 1977), p. 97.

30) *Institutes* I, 7:4.

31) 칼빈은 千年王國說을 부인했다. (*Institutes* III, 25:3).

32) L. Berkhof는 無千年說 주장(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p. 708).

33) 이 종성, *op. cit.*, p. 253.

Reynolds에 의해 한국에 칼빈주의가 소개된 것은 사실이다.³⁴⁾

또 한 분의 칼빈주의 신학자인 Crane는 1937년 한국 최초로 「組織神學」 책을 저술했는데³⁵⁾ 본서가 칼빈主義的 조직 신학서이긴 하나 칼빈 연구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이상에서 진부하게 칼빈주의적 경향과 초기 한국의 신학적 입장을 논구하는 이유는 칼빈주의적 기초가 주류적인 신학적인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에 대한 연구나 소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데 있다. 以上の 고찰에서 1945년 해방 이전 한국의 교회는 傳授된 칼빈주의 신학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장로교의 源流이며 칼빈주의의 초석이 되는 칼빈에 대한 주체적인 연구나 관심이 전혀 없는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칼빈의 신학이나 思想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거나 論究되지도 않았으며 단지 종교 개혁자로서 그리고 장로교의 元祖로서, 그의 業績을 알리고, 그의 人品을 소개하는 데 주력한 시기였다. (次號 계속)

IV. 칼빈 研究에 관한 文獻錄³⁶⁾(年度別 분류)

34) Jong-Sung Rhee, "Calvin Studies in Korea: Its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Circular No.13* (Clearing House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institutions for Christian Scholarship, April, 1979), p. 60.

이 근삼, *op. cit.*, p. 18.

그러나 이 장식 교수는 Reynolds를 성경 권위와 예정론에 있어서 다소 비판적인 교수로 보고 있다. 이 장식, "개혁 교회 신학과 신조의 특징", 「칼빈의 現代的 理解」(한신대 출판부, 1978), p. 23.

35) Crane 박사는 이 책에서 Barthian과 自由主義를 비판하고 알마니안과 칼빈주의의 신학의 한계성을 명확히 그어 놓았다. 이 책은 1954에 金奎唐 목사의 번역으로 「組織神學」이라는 題目으로 恩龍文化協會(現在는 폐사)에 의해 出版되었다.

36) 文獻作成에 참고한 文書는

神學指南總索引(1918~1976), 「神學指南」 43. No.4(1976.12), pp. 91~

<1924년도>

김 인영, “宗敎改革家 요한 칼빈”, 「신학세계」, 1924. 9. pp. 40-44.

<1934년도>

「神學指南」 제16권 제4집 (1934. 7) 통권 76호, 칼빈 특집호.

남 궁혁, “칼빈 神學과 現代生活”

송 창근, “요한 칼빈의 一生”

박 형룡, “칼빈의 豫定論”(28-37)

채 필근, “칼빈의 敎會論과 敎會政策”(38-48)

이 놀서, “칼빈 신학과 그 感化”

羅富悅, “聖書註釋家로 본 칼빈”(60-62)

곽 안련, “강단의 칼빈”(63-65)

칼빈(김 재준 역), “逼迫”-칼빈의 설교-(66-70)

<1936년도>

金永義, “칼빈의 공헌”, 「신학세계」, 21, no. 5(1936. 11). pp. 64-70.

<1937년도>

125.

基督敎思想總目錄(1957~1974), 「基督敎思想」(1975. 1), 부록 pp. 209~262.

김 양신, “韓國 基督敎 初期刊行物에 관하여”, 「史叢」 제 12, 13합집, 1968, pp. 571~597.

金昌宜, 「神學研究文獻學」, 한국 신학 도서관 협의회, 1972.

朴鍾浩 편, 「韓國神學論文總索引」(1916~1977), 총신 출판부, 1979.

한국 신학 도서관 협의회, 「한국신학관계 석박사 학위논문 목록」(1945~1977) 등이다.

咸日敦, “칼빈주의”, 「神學指南」, 19. no. 4 (1937. 7), pp. 19-23.

_____, “칼빈주의”, 「神學指南」, 19. no. 5 (1937. 9)

_____, “칼빈주의”, 「神學指南」, 19. no. 6 (1937. 11)

Lorane Boettner(박 형룡 역), 「칼빈주의 예정론」(*Reformed view of Predestination*), 예장 종교교육부, 367p.

<1938년도>

金泰默, “칼빈 神學에 있어서의 豫定思想의 意義”, 「神學指南」, 20. no. 5(1938. 9), pp. 33-45.

<1939년도>

남 궁혁, “칼빈의 思想”, 「神學指南」, 21. no.1 (1939. 1), pp. 2-10.

金泰默, “칼빈 神學에 있어서의 豫定思想의 意義”, 「神學指南」, 21.no. 1(1939. 1)

<1940년도>

박 형룡, “칼빈主義와 新칼빈主義”, 「神學指南」, 22. no. 5 (1940. 9), pp. 10-12.

<1950년도>

정 해동, “칼빈의 약력”, 「파수군」, 1950. 5(통권 5호), pp. 17-20.

_____, “칼빈의 약력”, 「파수군」, 1950. 6(통권 6호), pp. 8-9.

T.H.L. Parker(김 재준 역), 「칼빈의 모습」(*Portrait of John Calvin*) 대한기독교서회, 1950', 1973', 137p.

<1951년도>

L. Berkhof(김 상도 역), “現代의 宗教的 혼란 중에 있어서 칼빈主義의 확고성”, 「파수군」, 1951. 11, pp. 8-12.

〈1952년도〉

- 박 윤선, “칼빈主義의 基本原理와 칼 바르트의 基本原理”, 「파수군」, 제13집 (1952. 1), pp. 14-18.
- _____, “칼빈주의 (1)” 「파수군」, 16 (1952. 4), pp. 6-13.
- _____, “칼빈주의 (2)” 「파수군」, 17 (1952. 5), pp. 7-14.
- _____, “칼빈주의 (3)” 「파수군」, 19 (1952. 7), pp. 32-35.
- _____, “칼빈주의 (4)” 「파수군」, 21 (1952. 9), pp. 26-32.
- _____, “칼빈주의 (5)” 「파수군」, 22 (1952. 10), pp. 9-15.
- _____, “칼빈주의 (6)” 「파수군」, 24 (1952. 12), pp. 11-13.
- _____, “칼빈주의에서 본 教會와 國家”, 「파수군」, 23 (1952. 11), pp. 5-7.

〈1953년도〉

- 박 윤선, “칼빈주의 (7)” 「파수군」, 25(1953. 1), pp. 18-20.
- _____, “칼빈주의 (8)” 「파수군」, 26 (1953. 3), pp. 22-24.
- _____, “칼빈主義의 最大 表現인 웨스트민스터 信仰告白書와 위기 신학”, 「파수군」, 27 (1953. 4), pp. 5-10.
- _____, “칼빈主義와 政治”, 「파수군」, 33 (1953. 10), pp. 10-13.
- 전 경연, “칼빈의 생애와 그 信仰”, 「十字軍」, 12 (1953. 4), pp. 29-34.
- _____, “칼빈의 生涯와 그 信仰”, 「十字軍」, 15 (1953. 12), pp. 34-38.
- 김 찬국, “칼빈의 神觀”, 「神學論壇」, 1 (1953. 7), pp. 14-30.

申榮一, “John Calvin의 生涯와 著作”, 「神學論壇」, 1 (1953. 7), pp. 3-13.

〈1954년도〉

- 明信弘, “칼빈主義의 根本精神”, 「神學指南」, 23. no.1 (1954. 2), pp. 21-29.
- 文相熙, “칼빈의 基督論”, 「神學論壇」, 2 (1954. 6), pp. 150-169.
- 이 규형, “改革者로서의 칼빈”, 「로고스」, 4 (1954. 10), pp. 38-53.

〈1955년도〉

- 전 경연, “칼빈의 生涯와 그 信仰(神認識)”, 「十字軍」, 20 (1955. 3), pp. 34-40.
- _____, “칼빈의 生涯와 그 信仰(聖書)”, 「十字軍」, 21 (1955. 6), pp. 20-29.
- _____, “칼빈의 生涯와 그 信仰(三位一體의 하나님)”, 「十字軍」, 22 (1955. 9), pp. 25-31.
- _____, “칼빈의 生涯와 그 信仰(創造와 攝理)”, 「十字軍」, 23 (1955. 12), pp. 20-28.

〈1956년도〉

- 전 경연, “칼빈의 生涯와 그 信仰(人間의 全的 墮落)”, 「十字軍」, 24 (1956. 3), pp. 22-29.
- _____, “칼빈의 生涯와 그 信仰(칼빈의 神學, 信仰, 悔改, 義認)”, 「十字軍」, 26 (1956. 9), pp. 28-33.
- Dakin, A., (이 병섭 역), 「칼빈主義」(Calvinism), 대한기독교서회, 1956, 346p.

〈1957년도〉

- 채 위, “칼빈의 神認識論”, 「신학논단」, 3 (1957. 3), pp. 68-84.
 한 태동, “칼빈主義와 現代思潮”, 「基督教界」, 1 (1957. 8), pp. 17-23.
 정 응섭, “칼빈의 청소년 교육과 그 이념”, 「韓神大學報」, 3집, 1957.
 장 희근 역, “기독교 강요” 「과수군」, 64-69호(1957. 7-12).

〈1958년도〉

- Henry Stob(박 윤선 역), “칼빈과 그 神觀”, 「과수군」, 78 (1958. 9), pp. 8-16.

〈1959년도〉

- 安相燁. “現代主義와 칼빈主義”, 「로고스」(총) 11 (1959. 12), pp. 38-47.
 전 경연, 「칼빈의 生涯와 그 神學思想」, 新敎出版社, 1959, 259 p.
 Meeter, H. Henry(박 윤선, 김 진홍 역) 「칼빈주의」(*The Basic Ideas of Calvinism*),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1959, 1978, 199p.

〈1960년도〉

- 허 순길, “칼빈과 에큐메니칼리즘”, 「과수군」, 95 (1960. 2), pp. 18-20.
 김 진홍, “요한 칼빈을 추억함”, 「과수군」, 100 (1960. 7), pp. 65-73.
 지 원용, “루터와 칼빈의 敎會觀과 그 現代的 意義”, 「로고스」(총), 12 (1960. 12), pp. 46-85.
 Kerr, Hugh Thomron ed.(이 중성 역), 「기독교강요선」(*A Compend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y John*

Calvin), 대한기독교서회, 1960.

- Bavinck(손 두완 역), 「칼빈과 일반 은총론」, 서울, 성안출판사, 1960.

〈1961년도〉

- J.M. Spier(한 학수 역), “칼빈주의 철학 1-6”, 「과수군」, 1961, 3-12.
 윤 성범, “칼빈의 神認識論”-특히 그의 Institution을 中心하여-, 「기독교사상」, 5, no.3 (1961. 3), pp. 20-27.
 박 봉량, “칼빈의 신학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生活”, 「신학연구」 제7집(1961. 3), pp. 110-141.
 朴成模, “칼빈의 人間解釋과 近代 市民社會”, 연세大學院 석사 논문, 1961.
 Strong, R.(이 창원 역), 「칼빈주의 五大敎理」(*The five points of Calvinism*), 복된말씀사, 1961.

〈1962년도〉

- 지 원용, “칼빈과 웨슬레”, 「새생명」(1962. 1).
 J.M. Spier(한 학수 역), “칼빈주의 철학 7-10”, 「과수군」, 1962. 1-12.
 車泰化, “칼빈의 思想과 그 現代的 意義”, 大邱大學 大學院 석사 논문, 1962.
 박 형룡, “칼빈의 現代的 意義”, 「神學指南」 통권 29. no.1 (1962. 9), 칼빈 특집호, pp. 5-10.
 안 용준, “칼빈의 생애와 사업”, 「神學指南」, pp. 11-19.
 박 형룡, “칼빈 神學의 基本原理”, pp. 21-31.

- 오 병세, “칼빈의 神國觀”, 『神學指南』, pp. 32-41.
 명 신흥, “칼빈의 倫理思想”, 『神學指南』, pp. 42-51.
 김 희보, “목회자로서의 칼빈”, 『神學指南』, pp. 60-69.
 조 동진, “教會 통일과 분리에 대한 칼빈의 해석”, 『神學指南』, pp. 80-89.
 한 철하, “칼빈의 政治論”, 『神學指南』, pp. 90-102.

〈1963년도〉

- 이 근삼, “칼빈주의와 生活”, 『개혁주의』, 제 1 집(1963. 10), pp. 26-30.
 한 철하, “完全論者と 分離主義者에 對한 칼빈의 論駁”, 『神學指南』, 30. no.2 (1963. 6), pp. 40-46.
 김 재권, “칼빈의 겸손”, 『로고스』(총), no.15 (1963. 12), pp. 82-87.
 조 창연, “칼빈의 國家觀”, 韓神大 大學院 석사 논문, 1962.

〈1964년도〉

- 이 근삼, “칼빈主義와 學問”, 『개혁주의』, no.3 (1964. 4), pp. 22-27.
 지 원용, “豫定觀에서 본 루터와 칼빈”, 『神學研究』, no.8 (1964. 5), pp. 45-60.
 박 형룡, “칼빈主義의 후대 이적관”, 『로고스』(총), no.16 (1964. 12), pp. 12-16.
 J. Calvin(신 복윤 역), 『기독교 강요 1권』, 생명의 말씀사, 1964.

〈1965년도〉

- 문 동환, “요한 칼빈의 敎育觀”, 『기독교교육』, no.7 (1965. 3), pp. 22-26.

- 이 근삼, “칼빈主義와 人間像”, 『개혁주의』(1965. 11), pp. 3-7.
 정 하은, “칼빈의 倫理와 現代的 解釋”
 —칼빈은 資本主義의 鼻祖가 아니다—, 『신학연구』, no.9 (1965), pp. 96-126.
 한국 칼빈 신학 연구회 편, 『칼빈 서거 400주년 記念論文集』, 한국 칼빈 신학 연구회(1965. 5), 134 p.

〈1966년도〉

- 徐龍柱, “칼빈 神學에 있어서의 神認識論” 연세대 연합신학 대학원 석사 논문, 1966.
 홍 반식, “칼빈주의와 敎會聯合運動”, 『개혁주의』, no.14 (1966. 7), pp. 3-5.
 차 남진, “보수주의와 칼빈주의”, 『神學指南』, 33. no.4 (1966. 12), pp. 14-20.

〈1967년도〉

- 이 근삼, “칼빈과 說敎”, 『개혁주의』, no.21 (1967. 6), pp. 4-8.
 鮮于學源, “칼빈의 生涯와 政治思想”, 『기독교사상』, 11. no.7 (1967. 7), pp. 95-105.
 장 종철, “칼빈의 召命觀에서 본 Max Weber의 職業倫理”, 연세대 연합신학 대학 석사 논문, 1967.

〈1968년도〉

- 하 해룡, “칼빈의 聖書 이해”, 『기독교사상』, 12. no.3 (1968. 3), pp. 84-90.
 _____, “칼빈의 성서 이해”, 연세대 연합신학 대학원 석사 논문,

1968.

이 종성, 「칼빈, 一생애와 사상一」, 예장 총회 교육부, 1968, 222 p.

〈1969년도〉

신 복윤, “칼빈의 倫理觀”, 「神學指南」, 36. no.3 (1969. 10), pp. 44-53.

Jan D. Dengerink (정 정숙 역), “칼빈주의 政治觀”, 「神學指南」, 36. no.4 (1969. 12), pp. 51-58.

Peter Y. De Jong (김 득룡 역), “基督敎敎育에 나타난 칼빈의 공헌”, 「神學指南」, 36. no.4 (1969. 12).

李龍三, “칼빈의 人間理解”, 연세대 연신원 석사 논문, 1969.

김 성환,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영음사, 1969, 274 p.

〈1971년도〉

김 상학, “칼빈神學의 敎會論”, 연세대 연신원 석사 논문, 1971. 2.
李泰鎔, “키에르케고르와 칼빈의 人間 實存이해”, 건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71. 2.

한 철하, “政治的 칼빈主義”, 「기독교사상」, 15. no.3 (1971. 3), pp. 60-65.

김 의환, “칼빈의 聖經觀”, 「神學指南」, 38. no.1 (1971. 3), pp. 20-27.

_____, “칼빈의 社會觀”, 「神學指南」, 38, no.3. 4 (1971. 12), pp. 75-84.

곽 선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 一칼빈의 성서관一”, 「敎會와 神學」, 제4집(1971. 5), pp. 168-187.

Abraham Kuyper (박 영남 역), 「칼빈주의」(Lectures on Calvinism,

1898), 세종文化社, 1971.

Dengerink, J. D. (정 정숙 역), 「개혁주의와 정치」(Calvinistic view on Politics), 개혁주의 신행협회, 1971.

〈1972년도〉

W. Stanford Reid (김 영우 역), “16세기의 自然科學과 칼빈주의 思想”, 「神學指南」, 39. no.3 (1972. 9), pp. 91-111.

김 남식, “칼빈主義 文化觀”, 「神學指南」, 39. no.3 (1972. 9).

이 영희, “루터와 칼빈의 敎育思想 比較 研究”, 연세대 敎育대학원 석사 논문, 1972. 2.

강 동수, “칼빈의 성령론 이해”, 연세대 연합신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72.

박 근원, “J. 칼빈의 神認識論研究”, 한신대 大學院 석사 논문, 1972. 2.

유 무열, “Calvinism이 法에 미친 영향”, 東國大 大學院 석사 논문, 1972. 2.

김 남식 편, 「칼빈主義研究」, 백함出版社, 1972, 208 p.

이 근삼, 「칼빈·칼빈주의」, 고신대 출판부, 1972. 4, 181pp.

Henry R. Van Til (이 근삼 역), 「칼빈主義 文化觀」,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영음사, 1972, 361 p.

Boettner, L. (홍 익표 역), 「칼빈주의 예정론」, 백함출판사, 1972.

〈1973년도〉

이 종성, “칼빈의 생애와 그의 위치”, 「전통과 혁신」, 1973, 세종文化社, pp. 264-281.

허 순길, “改革主義敎會政治史에서 본 長老職

- 칼빈과 Westminster Assembly를 중심으로—, 고신대 「논문집」(1973. 5), pp. 58-68.
- 신 복윤, “칼빈의 國家觀”, 「神學指南」, 40. no.2 (1973. 6), pp. 7-22.
- 박 윤선, “칼빈主義 치지에서 본 바울의 목회론”, 「神學指南」, 40. no.2 (1973. 6), pp. 23-26.
- 김 의환, “칼빈주의와 자본주의”, 「神學指南」, 40. no.3 (1973. 9), pp. 34-39.
- 김 종인, “칼빈의 政治思想에 관한 研究”, 건국대 大學院 석사 논문, 1973. 8.
- 오 창학, “칼빈 神學에 있어서의 인간 회복”, 장신대 大學院 석사 논문, 1973.
- Niesel, Wilhelm(이 중성 역), 「칼빈의 神學」(*Die Theologie Calvins*), 대한기독교서회, 1973, 294 p.

〈1974년도〉

- 신 복윤, “칼빈의 칭의관”, 「神學指南」, 41. no.2 (1974. 6), pp. 41-47.
- 박 윤선, “칼빈主義 教會論”, 「神學指南」, 41. no.2 (1974. 6), pp. 8-25.
- 김 득룡, “칼빈主義의 牧會神學”, 「神學指南」, 41. no.3 (1974. 9), pp. 51-75.
- 허 순길, “칼빈 研究, -1538년 제네바 추방을 中心으로—”, 「미스바」, 제32호(1974. 11), pp. 39-51.
- , “칼빈과 제네바 아카데미”, 「고신대학보」(74. 12), pp. 10-12.

- 박 충식, “아우구스틴과 칼빈의 豫定論研究”, 건국대 大學院 석사 논문, 1974. 2.
- 김 성광, “칼빈의 政治思想에 관한 연구”, 外大 大學院 석사 논문, 1974. 2.
- 盧儀一, “칼빈의 教育思想이 西歐近代社會의 資本形成에 미친 영향”,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1974. 2.
- Loraine Boettner(김 정덕 역), 「칼빈주의 예정론」, 세종文化社, 1974, 150 p.

〈1975년도〉

- 김 의환, “칼빈主義 教會觀”, 「神學指南」, 42. no.3 (1975. 9), pp. 8-14.
- John Murray(나 용화 역), “칼빈의 성경 교리”, 「神學指南」, 42. no.3 (1975. 9), pp. 91-109.
- 김 이태, “칼빈의 改革精神의 저력”, 「기독교사상」, 19. no.9 (1975. 10), pp. 30-38.
- 김 성린, “칼빈에 있어서 教會法과 國家法の 관계”, 「고신대학보」, no.14 (1975. 10), pp. 10-13.
- 주 재용, “J. Calvin's Doctrine of the Church”, 「신학연구」, 제16집 (1975. 11), pp. 265-284.
- 신 복윤, “칼빈의 영혼관”, 「神學指南」, 42. no.4 (1975. 12), pp. 48-54.
- 김 대식, “칼빈의 教會觀”, 韓神大 大學院, 1975.
- David N. Steele and Curtis C. Thomas(김 남식 역),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The five points of Calvinism*), 한국성서협회, 1975, 158 p.

〈1976년도〉

- 이 근삼, “칼빈주의 國家觀”, 「고신대학보」, no.20 (1976. 6), pp. 11-15.
- 이 성철, “칼빈의 教會와 國家”, 장신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76. 2.
- 장 성규, “요한 칼빈의 목회론”, 장신대 대학원 석사 논문, 1976. 2.
- 한 영태, “웨슬레와 칼빈의 義認觀과 重生觀 비교 연구”, 서울神大 學院 석사 논문, 1976.
- John Murrey(나 용화 역), 「칼빈의 聖經觀과 主權思想」, 예수교 文書 宣教會, 1976, 110p.
- 구도사끼꼬기찌(계 훈창 역), 「존·칼빈전」, 七白社, 1976, 268p.

〈1977년도〉

- 정 성구, “칼빈主義 運動과 Groen Van Prinsterer”, 「神學指南」, 44. no.1 (1977. 3), pp. 61-70.
- , “칼빈주의와 설교 -Amdreas Gerhard와 John Calvin을 中心으로-”, 「神學指南」, 44. no.3 (1977. 9), pp. 79-90.
- , “칼빈主義의 宣敎”, 「神學指南」, 44. no.4 (1977. 12), pp. 32-43.
- 신 복운, “기독교강요, 歷史, 著作目的, 思想的背景”, 「神學指南」, 44. no.3 (1977. 9), pp. 37-46.
- 홍 차모, “Calvin과 Renaissance Humanism”, 「改革神學」, no.3 (1977. 4), pp. 79-90.
- 이 근삼, “칼빈주의 國家觀”, 「고신대학보」, no.35 (1977. 11), pp. 12-15.
- 오 병세, “칼빈주의 敎育觀”, 「개혁신앙」, no.1 (1977. 12), pp. 16-19.

- Jay Green(정 성구 역), 「칼빈主義 어제·오늘·내일」(Calvinism,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세종文化社, 1977, 130p.
- J. 칼빈(김 문제 역), 「기독교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Vol 1-4, 세종文化社, 1977.
- J. 칼빈(문 창수, 정 성구), 「칼빈 신약 성서 주해, 로마서 上」, 세종文化社, 1977.

〈1978년도〉

- 강 용원, “칼빈의 敎育活動과 그 意義에 관한 研究”, 長神大 大學院 석사 논문, 1978. 2.
- , “칼빈의 敎育活動과 그 意義”, 「복된말씀」, no.188 (1978. 6).
- 정 성구, “칼빈주의와 文化(1)”, 「神學指南」, 45. no.2 (1978. 여름), pp. 65-73.
- 이 형국, “칼빈의 法律觀”, 「神學指南」, 45. no.3. 4습(1978, 가을, 겨울), pp. 103-116.
- 이 장식, “칼빈의 종교 개혁과 한국 장로 교회”, 「기독교사상」, 78. 10. pp. 42-54.
- 나 학진, “保守的인 루터와 進取的인 칼빈 -윤리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사상」, 78. 12.
- J.M. Spier(김 남식 역), 「칼빈주의 哲學」(What is Calvinistic Philosophy), 세종文化社, 1978. 95pp.
- 정 성구, 「칼빈主義 思想과 삶」, 한국성서협회, 1978, 220p.
- 이 종성, 「칼빈, 생애와 사상」, 대한 기독교서회 1978, (신판) 253p.
- 한신대 교수 11인 공동 집필, 「칼빈神學의 現代的 理解」, 韓神大 出版 部, 1978, 247p.

〈1979년도〉

- 김 성린, “칼빈主義 立場에서 본 教會와 國家”, 「개혁신앙」, no.13 (1979. 3), pp.18-21.
- 신 복운, “칼빈의 教會觀”, 「神學指南」, 46. no.1 (1979. 봄), pp. 39-52.
- 정 성구, “칼빈의 說教 研究(1)”, 「神學指南」, 46. no.1 (1979. 봄), pp. 53-73.
- 김 득룡, “칼빈의 목회 신학 연구”, 「神學指南」, 46. no.2 (1979. 여름), pp. 8-45.
- 정 성구, “칼빈의 설교 研究(2)”, 「神學指南」, 46. no.2 (1979. 여름), pp. 46-66.
- Hans H. Esser(장 일조 역), “칼빈의 政治理論”, 「세계와 선교」, 1979. 6, pp. 39-51.
- 이 장식, “칼빈主義에 대한 辨證”, 「세계와 선교」, no.63 (1979. 8), pp. 5-14.
- 김 경재, “現代神學에서 본 칼빈 神學의 위치”, 「세계와 선교」, no.63 (1979. 8), pp. 15-24.

書 評